



전 효곤

- 세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에 합격한 전효곤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수기를 참고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1차시험

1. 생활 - 종합반의 장점과 통학시간 공부법

이공계 학생으로서 법공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종합반을 등록했습니다. 종합반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하루 이틀은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페이스를 잃기 쉽습니다. 반드시 종합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공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스터디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학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정도 걸렸습니다. 하루에 왕복으로 4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도 항상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책상에서 보다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더 집중력이 좋기도 했습니다. 막바지에는 학원에서는 법과목, 통학시간에는 자연과학만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과목없이 균형 있게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2. 공부방법 - 기본서 1회독과 객관식강의의 중요성

기본강의 수강에만 4~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는 법률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기이므로 강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강의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순서로 수강하였고, 자연과학은 가장 자신 없는 과목부터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 이후에 바로 객관식강의를 들어가기 보다는 2~3개월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기본서 1회독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책을 혼자 읽을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변리사 기출문제를 함께 펴놓고, 기출된 지문을 기본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회독했습니다. 기출지문이 엄청나게 반복된다는 사실과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식 강의는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서 1회독 이후에, 다시 기본서 회독을 반복하기보다는 객관식 문제집을 최대한 일찍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객관식문제집을 풀다는 것은 진정한 '시험을 위한 공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객관식문제집을 풀면서 비로소 점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기본서는 사전처럼 찾아보는 식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한달은 1차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법과목의 경우는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이 회독을 하느냐가 곧 시험성적입니다. 동시에 욕심을 버리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못한 내용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그동안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만 시험장까지 잘 가져가자"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연과학은 마지막 한달동안 개념위주의 공부보다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길 추천합니다. 각 과목마다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의 수강 스케줄과 봤던 교재입니다.

- 법과목 : 민법(3월~5월) → 상표법(5월~6월) → 디보법(7월) → 민법 객관식(12월) → 상표법 객관식(1월), 특허법은 종합반 스케줄상 3월부터 1월까지 매일 1시간씩 수업.
- 자연과학 : 화학, 생물 (5월~6월) → 지구과학(7월) → 화학, 생물 중급강의 (8월) → 물리(9월)

	강의	기본서	객관식
민법	기본, 객관식, 최신판례 (류호권)	포인트 민법	포인트 객관식
특허법	기본, 판례, 기출문제 (조현중)	판례집	기출 문제집
상표법	기본, 객관식 (윤형근, 원대규)	윤상표법	태인 상표법
디보법	기본 (김웅)	강의 교재	
물리	기본 (이준석)		물리의 각
화학	기본, 중급 (이문환)		합격 소화제

생물	기본, 중급 (임수현, 최성운)		새로운 생물
지구 과학	기본 (박준희)		강의교재

II. 2차시험

동차 2차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25점, 특허법 45점, 상표법 45점, 열역학 53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차때 민사소송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읽다가 법조문만 겨우 찾아서 베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2차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65점, 특허법 45점, 상표법 50점, 열역학 71점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그토록 어렵던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 - 수험문제처럼 생각하기

저는 사례문제를 ‘수험문제’처럼 푼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안지는 크게 ① 논점찾기 → ② 학설 및 판례 → ③ 사례적용 → ④ 결론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마치 수험문제를 풀때 ‘공식을 증명’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이해했습니다.

② 학설 및 판례에서는 주어진 사례를 적용할 나만의 공식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앞으로 취할 학설이 제일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판례, 학설의 논거를 많이 쓸수록 고득점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험가에서는 이 부분을 얼마나 적어야 적당한지, 논거를 몇 개를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저는 ‘배점’이 이에 대한 출제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험문제도 공식부터 증명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공식에 바로 대입하는 문제도 있듯이 법과목도 때에 따라 다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논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점이 작은 경우에는 논증을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논점은 적는데 배점이 크다면, 최대한 많은 학설과 관련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저만의 견해를 쓸지에 대해서는 답안지가 너무 장황해지지 않는 선에서 간결하게 취지 정도만 언급하면서 논증을 마쳤습니다.

③ 사례의 적용에서는 위에서 증명한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는 부분입니다. 즉, 위에서 취한 학설에 사례를 대입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때 사례문제에 주어진 상황이나 용어들을 최대한 인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워서 바르는 기계적인 답안지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②에서 취하는 학설과 다른 학설의 경우에도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줘서 해당 논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④ 결론에서는 내가 취한 학설과 사례의 결론을 문제에서 묻는 바에 따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미 ③에서 결론이 언급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점자께서 자칫 결론이 없다고 착각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답안지의 구조를 수험문제처럼 이해함으로써 쓸데없는 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할때는 ‘증명’과정(학설 및 판례)을 축약해서 앞으로 취할 학설의 내용만 간단히 언급한 후, 바로 사례에 적용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하루 2시간 쓰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가지만 꼽자면, 시험 이틀전까지 매일 2시간씩 답안지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1시간씩, 3월부터 시험 이틀전까지는 2시간씩 매일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스터디(9시~11시)로, 주말에는 실전GS를 신청해서 강제성을 만들었습니다.

2시간쓰기의 최대 장점은 꼭 외워야하는 부분을 추려내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2시간동안 쓸 수 있는 최대 분량은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 외워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것만큼은 꼭 외워야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우선적으로 외워야할 부분부터 점차 쌓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써본 내용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돌던 내용을 답안지에 쓰면서 나도 모르게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험막바지로 갈수록 느끼는 불안감이 쓰기를 통해 해소됩니다.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도 막상 쓰면 써지는 모습을 보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GS를 구해서 쓰기 보다는 이미 한번 들었던 실전GS를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마다 2개정도의 실전GS를 들으면 결국에는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쓰기에 자신이 없거나, 암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매일 쓰기를 추천합니다.

3. 암기할 부분을 최소화하기

암기에 자신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논점을 풍부하게 외워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암기위주의 공부를 많이 안해봤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11월부터 1월까지의 어떻게든 무작정 외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위장장애까지 생겨 몸이 안좋아졌습니다. 저에게는 맞지 않는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S에서 써봤던 논점과 챗터마다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논점만 외우기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약 90개정도의 논점만을 뽑아서 문제점·학설·판례 set로 외웠고, 나머지 논점은 판례의 결론 정도만 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을 줄이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논점을 암기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많은 것을 들고 있다가 놓치는 공부 보다는 점점 늘리는 공부가 멘탈관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실전GS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2개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특히 민소법은 매달 수강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강사분들의 실전GS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평오 실전GS는 교수님의 관점에서 채점을 직접해주셔서 점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채점해주신 한빛 최종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 점수가 일치했습니다.

최영덕 실전GS는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감을 못잡고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직접 채점해주시고, 채점기

준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나중에는 스스로도 대강의 채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한 실전GS는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점을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채점을 직접해주시지 않아서 점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6월까지도 대부분의 실전GS 등수가 상위 30%~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매주 성적이 나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사실 GS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GS와 실제시험은 문제스타일, 채점방식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GS와 달리 실제시험에서 유독 고득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GS등수는 전형적인 논점을 누가 더 잘쓰냐의 기준정도로만 삼고, 결국엔 실제시험을 잘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험당일까지 멘탈을 관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 제가 회독했던 기본서와 수강했던 실전GS입니다.

	기본서	실전GS
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 강의, 사례·판례 (최평오)	최평오AB, 최영덕AB, 이창한AB
특허법	테마특허법 (박지환)	박지환, 박형준A
상표법	상상특허법 (박진호)	박진호AB, 김세진, 최지환
열역학	열역학 (김준혁)	권정환

Ⅲ. 글을 마치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